



제6회 소방산업대상, (주)혜정산업 대통령 표창

친환경 수성막포·내한용 친환경 합성포 개발로 산업발전 공로 인정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소방산업대상'에서 친환경 포소화약제를 개발한 (주)혜정산업이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20일 제6회 소방산업대상 산업기술부문 및 소방시설안전부문의 최종 수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산업대상은 국내 소방산업 분야의 신기술이나 제품, 공법을 상용화한 기술인 또는 단체와 분야 발전에 기여한 연구논문 등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올해 소방산업기술부문에서는 '친환경 수성막포 소화약제 및 내한용 친환경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제조기술'을 개발한 (주)혜정산업(대표 최영호)이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제독 소방자동차'를 개발한 (주)한서정공(대표 홍석봉),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은 광섬유를 이용한 비상대피유도용 조명시스템을 개발한 (주)어번라이팅(대표 박진향)이 수상한다.

또 소방방재청장표창에는 중경기술(주)(대표 김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표창에는 디지털 통로 유도등을 개발한 (주)제이앤씨디자인(대표 정택중)이 각각 선정됐다.

소방시설안전부문에서는 원우이에프엔지니어링(주)(대표 홍성국)가 '열 및 연기감지기 점검을 위한 다용도 점검장비 개발과 기능 및 내구성 강화를 통한 현장 점검업무 효율화' 기술로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받게 됐으며 (주)운영방재엔지니어링(대표 남상욱)과 거림소방(김명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소방산업대상의 최종 수상자에게는 훈격에 따라 100~300만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며 오는 11월에는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기사입력시간 : 2014년 10월23일 [11:34:00]